

# SK의 '동남아 드림'... 잠재가치 찾아 1년 새 1兆 투자

추가투자에 SK 5개 계열사 참여  
베트남·태국 등 신사업 확장 박차  
인도네시아도 소매 유통 등 호조

SK그룹이 동남아시아 전담 투자펀드 규모를 1조원 이상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 가치를 감안해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해 8월 동남아에 5억달러(약 5500억원)를 출자한 데 이어 최근 5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투자는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외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식·음료와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 산업,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모두 SK의 주요 계열사다. 이들 사업체별 출자금액은 1억 달러다.

SK가 1년 사이 1조원대를 투자하며 동남아 신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최태원 SK회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폭발적인 성장과 잠재가치 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 기회를 발굴해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삼성과 LG, 일본의 소니, 미쯔비시,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격전장이 됐다. 베트남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7%로 아시아에선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다. 세계 쌀 생산량은 태국에 이어 2위이

며 6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고 광산만 5000여 곳에 달한다.

앞서 SK는 지난해 9월 베트남 최대 식료품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체인 마산그룹의 지분 약 9.5%(4억7000만달러)를 사들이며 베트남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 양쪽과 수교한

상태다.

태국의 경우 동남아 관광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연간 관광객은 2000만명에 달하며, 유명 호텔이 많아 세계적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SKT는 지난 1월 말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그랩과 지도·길안내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랩은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리무진·오토바이 등을 운영하는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다.

양사는 싱가포르에 조인트벤처 '그랩 지오 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제럴드 심 그랩 서비스총괄이 최고경영 책임자를 맡고, 김재순 SKT 내비게이션 개발 셀장이 최고기술경영자를 맡는다.

인도네시아도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현지 경제성장률은 5.17%로 전년 성장률 5.10%보다 0.07%포인트 높

은 수치다. 또 같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현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18%로 집계했다.

현지 언론은 "소매 유통과 자동차 등 내수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SK플레닛 등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아우디 동탄' 전시장·서비스센터 개장 'LG G8 씽큐'에 ToF 최첨단 3D센서 탑재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공식 딜러사인 위본 모터스가 '아우디 동탄' 전시장 및 A/S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 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아우디 동탄 전시장'은 1층과 2층에 총 15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과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차량 색상, 가죽 샘플 등을 고객들이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아우디 익스클루시브 존', 2층에 '아우디 스포츠 존'에서는 고성능 라인업 S와 RS를 만날 수 있다. 3층의 고객라운지에서는 방문 고객들의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상담 환경과 서비스 대기 고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지하1층에 위치한 A/S 서비스센터는 8대의 워크베이를 갖추고 있으며, 일일 최대 40대의 정비가 가능하다. 특히 두 명의 테크니션이 한 개의 워크베이에서 동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위본 모터스가 개장한 아우디 동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아우디코리아

시에 작업하는 '아우디 트윈 서비스'를 통해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우디 인증중고차 전시 공간을 함께 선보여 인증중고차 담당 직원이 상주하며 윈스톱으로 중고차 구매상담 및 차량 실물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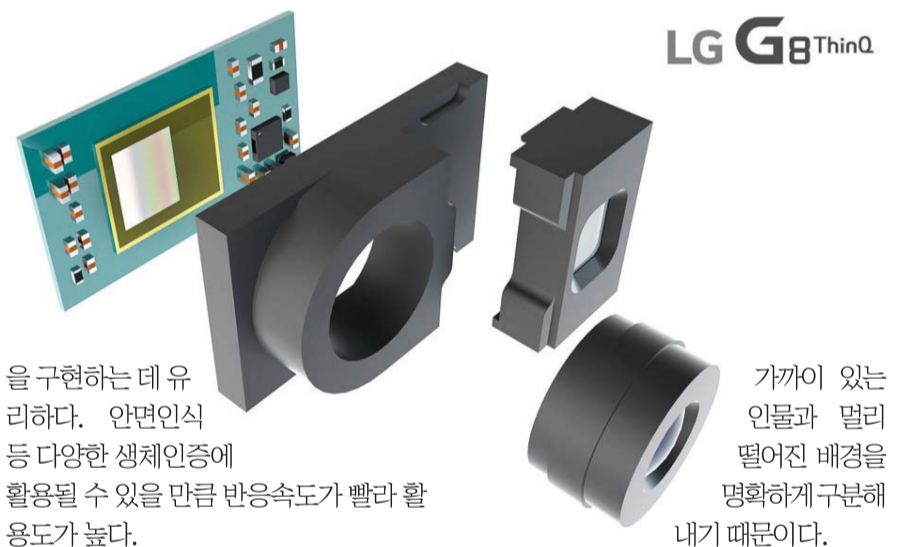
/정연우 기자 yw964@

독일 반도체솔루션업체서 공급  
인물·배경 등 명확한 구분 가능

LG전자가 이달 공개하는 스마트폰 신제품 LG G8 씽큐(ThinQ)에 ToF(비행 시간 거리측정) 방식 최첨단 3D센서를 탑재한다.

LG전자가 신제품에 탑재하는 ToF 센서는 독일 반도체솔루션업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공급한다. 이 회사는 자동차, 전력관리, 디지털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및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9조7000억원 규모다.

ToF는 피사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로 카메라와 결합하면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을 3D로 인식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외부 빛 간섭을 받지 않아 야외에서도 인식률이 뛰어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LG G8 ThinQ

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증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반응속도가 빨라 활용도가 높다.

LG전자는 사물을 3D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ToF 센서를 LG G8 씽큐 전면에 탑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LG G8 씽큐로 셀카를 찍을 경우 더욱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효과를 낼 수 있다. 고객이 사진을 찍는 순간 ToF 센서가 피사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까이 있는 인물과 멀리 떨어진 배경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때문이다.

앞으로 LG전자는 ToF 센서의 장점을 활용해 신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에서 LG G8 씽큐의 상세 스펙을 일반에 공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일렉트로룩스, 광고모델에 이정재 발탁

일렉트로룩스는 배우 이정재를 광고모델로 발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일렉트로룩스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정재를 앞세운 제품별 광고와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며 프리미엄 라인인 '퓨어(PURE) 시리즈'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퓨어 시리즈의 대표 제품으로는 지난해 8월 선보인 신기념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퓨어 F9'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3D비전시스템'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퓨어 i9', 2000와트 흡입력을 보유한 유선청소기 '퓨어 D9' 등이 있다.

특히, 이정재는 주력상품인 퓨어F9알리기에 적극 나선 계획이다. 퓨어 F9은 한 국소비자포럼 주최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무선청소기 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제품



/구서윤 기자

이다. 세계 최초로 메인 모터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렉스리프트' 메커니즘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무선청소기 가운데 국내 최대 용량인 36V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타사 대비 가장 긴 연속 사용시간을 자랑한다.

일렉트로룩스 관계자는 "프리미엄한 이미지와 연기에 대한 꾸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정재의 모습이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온 일렉트로룩스의 가치와 잘 맞아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 대한항공 봉사단 인니서 사랑의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사내봉사단 '사나사(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단원 10여명이 지난달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마나도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마나도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섬인 술라웨시섬 북술라웨시주의 주도로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마나도의 예프랑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예프랑 마을은 빈곤한 주민이 많고 교육과 복지 혜택이 거의 없는 곳이다.

대한항공 봉사단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고아원 생활관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생활관에서 미화활동을 전개했으며 고아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원들이 인도네시아 고아원 생활관의 기초공사 후 현지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시간을 보냈다.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지난해에도 캄보디아 소외 계층 지원,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비콜 지역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대한항공에는 25개의 사내 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각 봉사단은 회사의 지원 아래 고아원,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연우 기자